

# 색과 빛의 변주...광주를 노래하다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전

다니엘 뷔렌 등 국내외 10명 참여  
마크 쿤 꽃그림·서도호 작품 눈길  
10월 31일까지 광주디자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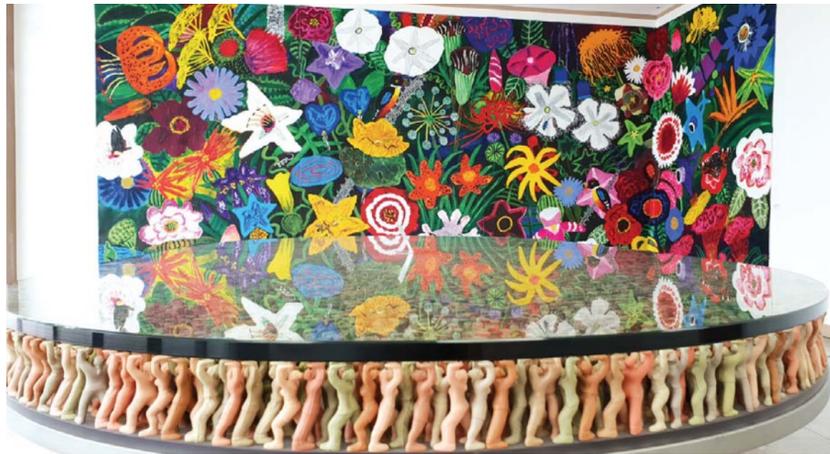


파리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은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했다. 기하학적인 곡선을 활용해 변화무쌍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의 작품답게 건물은 다양한 곡선으로 구성돼 있다.

아마도 지난 2016년 이곳을 방문한 이들이라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미술관 건물을 접했을 것이다. 현재의 무채색 외관과 달리 알록달록한 13가지 색깔의 필름이 건물을 감싸고 있어서다.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다니엘 뷔렌의 '빛의 관측소'가 프랭크 게리의 작품과 만나 구현한 풍경이었다.

다니엘 뷔렌의 작품을 광주에서도 만날 수 있다. 광주디자인센터가 진행하는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제18회 광주FINA 세계수업선수권대회 기념전 'Dive into Light'를 통해서다. 수영대회 개막에 맞춰 오픈한 이번 특별전은 디자인비엔날레가 끝나는 오는 10월31일까지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빛의 도시' 광주의 평화로운 빛을 엮은 것으로,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인 '휴머니티(humanity)'를 구현한 작품을 국내외 작가 10명이 선보이고 있다.

다니엘 뷔렌의 작품은 독립된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한국에서 최초로 전시되는 광섬유 작품 24점으로 구성된 'Photo-souvenir' (2018)은 저마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화려한 색의 변주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현재 서울 동아일보 사옥 전체를 거대한 캔버스 삼은 작품 '한국의 색'을



화려한 꽃그림이 인상적인 김종학의 'Pandemonium'과 수많은 미니어처로 구성된 서도호 작가의 '테이블'

진행중인 그는 1986년 베니스 비엔날레 프랑스관 작가로 참여해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층 'Into Red' 색선에서는 화려한 꽃그림을 만날 수 있다. 마크 쿤의 'Spring at the South Magnetic Pole'은 강렬한 생명력이 돋보이는 관능적인 꽃의 자태가 인상적이며 양쪽 벽면을 가득 채운 김종학의 'Pandemonium'은 원시성의 꽃그림이 화사하다. 장애아들의 모습을 그려온 김근태 작가는 장애아동들의 영혼을 '들꽃'과 '별'로 재현한 '들꽃처럼 별들처럼'을 전시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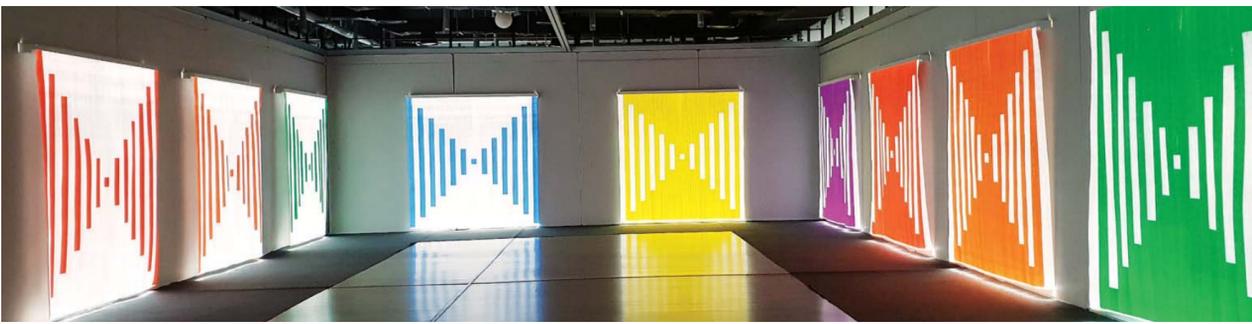
꽃들에 둘러싸인 작품은 제49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 대표였던 서도호 작가의 '테이블(Table)'이다. 전시장 안에 막 들어섰을 때는 단순히 라운드형 유리 테이블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 형상을 한 다양한 색상의 수천개 미니어처가 유리 테이블을 함께 떠받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작품 앞에서 좀처럼 발을 떼기 어렵다. 서 작가는 광주폴리 '테세호텔'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탁 트인 2층 공간을 활용한 'Into Light' 색선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도 흥미롭다. 귀여운 곰 인형, 로봇 장난감 등의 캐릭터와 하얀나무가 어우러진 에디 강희의 설치 작품과 팝아트적 색채와 만화적 느낌이 강한 평면 작품은 각기 다른 감성으로 다가온다.

그밖에 프랑스 문학가 미셸 뷔토르의 시 '더 이상 하늘의 빛을 외치지 말라'를 모티브로 삼은 이성자 작가의 작품과 물 속에서 유영하는 듯한 인간의 모습을 담아낸 김형기 작가의 미디어 작품, 유리창에 설치하는 색색의 블라인드를 활용한 데이빗 장의 설치작품도 만날 수 있다.

한편 디자인센터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삼재전 도예가와 최춘근 조형예술가가 진행하는 '도자벽화 체험'과 '한지 조형물 체험'을 운영중이다. 완성 작품은 오는 9월 6일 개막하는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 본전시장에 전시된다. 문의 062-611-5000.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다니엘 뷔렌 작 'Photo souvenir'

## 김유정 소설 '봄봄' 연극으로 만난다

'연극문화공동체 DIC' 14·21일 '공연일번지'서

김유정 작가의 소설 '봄봄'을 연극 무대로 만난다. '연극문화공동체 DIC' (이하 극단 DIC)가 오는 14일, 21일 오후 8시 소극장 공연일번지(동구 금남로3가 15-1)에서 연극 '봄.봄'을 공연한다.

소극장 공연일번지가 주최하는 '수요극장'으로 진행되는 이날 공연은 기획 '인문학, 연극으로 만나다'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다. 이번 기획은 각종 문학 작품이나 근대문학, 근대 인물전 등을 연극 무대로 만나는 기획으로, 지난날에는 노래극 '진채선 못다핀 사랑꽃' 등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연극 '봄.봄'은 김유정 작가의 소설 '봄봄'을 극단 DIC가 연극으로 창작·각색한 작품으로, 주인공과 점수 사이의 풋풋한 사랑, 장인어른 붓필과 벌이는 신경전 등 원작 줄거리를 살리되 연극적인 요소를 섞어 해석적인 연출로 풀어낸다.

정문의 연출가 각색·연출했으며 김장준 배우가 주인공 역을, 이현숙 배우가 점수 역을 맡아 연기한다. 임흥석·문진희·심성일 등 배우도 함께 무대를 꾸민다. 무료 공연. 문의 062-222-7008, 010-4701-7300.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연극 '봄봄'의 한 장면.

본선 진출자 14명 확정

광주성악콩쿠르 17일 결선 무대

정음성악축제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2019 광주성악콩쿠르' 본선 무대에 오를 14명이 가려졌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운기)은 지난 10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광주성악콩쿠르 2차 예선을 진행, 최종 결선 진출자를 선발했다. 본선 진출자는 ▲소프라노=황지영·박누리·김혜림·이혜연·이선우 ▲메조소프라노=정주연 ▲테너=박성근·이강운·정현우 ▲바리톤=박성환·박사무엘·박창성·정민성이다.

결선 무대는 오는 17일 오후 1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치러지며, 정음성 가곡 중 1곡, 한국가곡 중 1곡, 오페라·오라토리오·콘체르토 아리아 중 1곡 중 3곡을 통해 최종 입상자 8명이 선정된다. 입상자에게는 1위 1500만원 등 총 38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한편 본선 경연 입상자들은 23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광주성악콩쿠르 입상자콘서트'를 연다. 무료 관람. 문의 062-670-7466, 7468.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심사 신동욱 선생 사적비.

## 심사 신동욱 선생 항일사적비 제막식

내일 광주공원 애국정신 기려  
김준태 시인 '신동욱 송가' 출간

일제 침략 식민지배 속에서 전라도의 병은 당시 조선반도 의병 숫자의 전체 60%를 차지할 때가 있었다. 또한 의병과 일본군의 전투횟수도 전라도 지역이 40%를 육박하기도 했다.

유학자로서 나라사랑을 행동으로 나선 이 가운데 함평 출신 신동욱(1870~1942) 선생이 있었다. 그는 나산면 송암리 출신으로 재가의병장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신 선생은 일제의 명치전쟁 은사금을 거절해 고초를 겪은 창녕 영산 신씨(辛氏) 신성준 선생과 나주 정씨(鄭氏) 기안의 딸 사이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신 선생은 1908년 일제의 남한대토벌 작전에 맞서 의병전쟁에 적극 투신했다. 당시 그는 심남일, 김태원, 전해산, 정원집 등의병장과 비밀연락을 취하며 식량 보급, 무기반입 등 조선의병의 군수물자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가 '심사 신동욱 선생 항일사적비' (心史辛東旭先生抗日事蹟碑) 제막식이 오는 14일 오전 11시 광주공원에서 열린다. 이날 제막식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각계대표, 시민들이 참석해 항일독립운동가 신동욱 선생의 애국정신과 충혼을 되새긴다. 비문에



는 침략자 일제 식민지배와 맞서 싸운 유학자 출신으로 의병 전쟁에 몸을 바친 신동욱 선생이 평생 좌우명으로 삼은 경구 '불기심(不欺心)'이 임택(성균관대 명예교수) 교수의 비문과 함께 새겨져 있다. 서예가 학정 이돈홍이 심사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담아 붓으로 옮겼다.

이날 김준태 시인이 짓고 노래한 '한말 항일독립전쟁의병시집' '심사 신동욱 선생 송가·문학들'도 함께 출간돼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시집은 '남한대토벌 작전'을 전후해 광주를 중심으로 상해임시정부독립자금과 의병장 심남일, 김태원, 전해산 장군 등과 관계하면서 군량미, 군수물자 조달 등을 담당했던 심사 신동욱 선생의 일대기를 시로 담고 있다. 혹자는 의병전쟁에 참전한 그의 정신을 기려 별호로 '재가의병장'이라고 부른다.

송가 형식을 보여주는 이 시집은 '을미사변' (1865·명성왕후 시해) 이후 '을사보호조약' (1905), '한일합방' (1910) 전후 전라도를 거점으로 일어난 제1, 2, 3, 4차 의병전쟁을 무대로 하는 노래 형태의 서사시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입문'

'ACC시네마테크' 체험 워크숍  
18·20·21일 ACC문화정보원

'ACC시네마테크' 8월 특집 프로그램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입문'이 오는 18·20·21일 오후 1~4시 ACC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 블랙박스에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실제 필름을 사용해 짧은 영화를 만들어보며 영화의 제작 원리, 상영까지의 과정 등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 소규모 워크숍이다. 이날 워크숍은 영화를 이용한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 올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실제 여러 종류의 필름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미지를 표현하고 직접 자르고 붙이는 작업을 통해 편집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완성된 필름을 영사기에 돌리보며 영상의 움직임들을 직접 확인해볼 수도 있다.

이날 워크숍은 필름·영상 설치작가 변재규 감독을 비롯한 영상 전문가들이 직접 아이들의 필름 제작을 지도·소통할 계



획이다. 편집을 거쳐 만들어진 최종 작품은 25일 오후 3시 라이브러리파크 극장 3에서 공개 상영된다. 참가비 무료. 참가 신청은 13일 오후 4시부터 15일까지 ACC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순 12명). 문의 1899-5566.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